

대리기사들 총파업 결의

업체 부당 대우 반발 ... 91%가 찬성

광주지역 대리기사들이 대리운전 업체의 부당한 대우에 반발, 한시적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대리기사와 업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 대리기사협회는 구랍 30일 광주 서부구 신안동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실에서 4차총회를 갖고 한시적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협회 소속 대리기사 312명 중 95명이 참석했으며 파업찬반투표는 찬성률 90.5% (86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대다수의 회원들이 생계 문제 등을 이유로 무기한 총파업을 반대, 투표 당일 하루만 대리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총파업을 대신했다. 이들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한 차례 파업을 벌였으며, 22일 이후에는 광주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을 방문, 항의집회를 가졌었다.

대리기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75만원→65만원) ▲콜 수수료 부과금 인하(2천500원→500원) ▲별급제도 폐지(한 건 당 500원~1천원) 등을 광주지역 21곳 대리운전업체 측에 촉구했다. 그러나 대리운전 업체 21곳 중 2곳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업체들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리기사들은 1일부터 대리기사협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19곳의 대리운전업체를 방문, 항의집회를 열고 필요에 따라 한시적 파업을 벌이는 등 대응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특히 대리기사들로 구성된 유한(有限·50인 이하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조직된 회사·합자(合資·두 사람이상이 자본을 대어 만든 기업)회사 등 형태의 대리운전업체를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대리기사협회에 미가입한 대리 기사를 대상으로 회원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조만간 대리운전업체의 부당성을 알리는 진정서를 작성해 검찰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 대리기사협회 강철용(51) 부회장은 "단 돈 10원이라도 벌여보겠다고 추위에 떨면서 밤새 발을 동동 구르며 열심히 일하는데, 업체 측은 보험료를 과다징수하면서 사고나면 '나 몰라라' 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대리기사협회는 지난해 11월 9일 창립했으며 동·서·남·북·광산구 등 5개 지부를 두고 있다.

/이종필기자 golee@kwangju.co.kr

“해맞이 행사 함께 하니 예산도 절감”

광주시 서구·남구 올해부터 합동행사

같은 산 정상에서 지난 3년간 따로 해맞이 행사를 치러 민중을 사 온 광주 남구와 서구가 올해는 공동으로 새해 행사를 치른다.

광주시 남구청과 서구청은 1일 새벽 금당산 정상 깃대봉에서 양 구 주민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공동 해맞이 행사를 갖는다.

금당산은 남구와 서구의 경계선에 자리잡고 있어 두 구청은 그동안 해맞이 행사 개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새해 첫 해돋이를 보기 위해 산 정상으로 올라 온 주민들을 양분해 정상 한켠에서는 남구가, 또다른 한켠에서는 서구가 각각 행사를 여는 진풍경이 벌어져 온 것이다.

1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깃대

봉과 감투봉에서 두 구청이 새해 벽두부터 기싸움을 벌이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산은 하나인데 예산 낭비까지 하면서 행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책을 해왔었다. 두 구청의 따로 행사는 지난 2006년 이후 3년째 계속돼 왔었다.

남구 관계자는 “같은 산 정상에서 따로 행사를 치러 시민들의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서구청 쪽에서 두 구청장이 모두 참석하는 공동행사로 진행하자고 제안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새해 금당산 해맞이 행사는 1일 오전 7시 해발 304m 정상에서 풍물놀이로 시작되고 일출감상, 소망을 담은 풍선날리기, 구청장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1분 달돋이 10시 24분
 해질 17시 31분 달질 21시 56분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구름이 많고 곳에따라 눈이 조금 오는 곳도 있겠다.

광주	구름많고 한때 눈	-4/4℃
목포	흐리고 한때 눈	-1/3℃
여수	맑음	-3/3℃
완도	구름많고 한때 눈	-1/3℃
구례	구름많고 한때 눈	-5/3℃
해남	구름많고 한때 눈	-1/4℃
장흥	구름많고 한때 눈	-2/4℃
고흥	구름많고 한때 눈	-2/4℃
순천	구름많고 한때 눈	-5/3℃
영광	구름많고 한때 눈	-4/3℃
진도	구름많고 한때 눈	-2/3℃
진주	구름많고 한때 눈	-6/2℃
남원	구름많고 한때 눈	-8/2℃
옥산도	흐리고 한때 눈	0/3℃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목포 04:34	09:56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17:11	22:33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3.0m	여수 11:53	05:18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	18:0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날씨						
최저/최고	-5/5	-2/6	-2/5	-2/4	-3/4	-3/4

쇠고기 원산지 속인 음식점 2명 기소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 광주 유명 음식점 종업원 2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구랍 31일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 광주 상무지구 H 음식점 총무과장 지모(35)씨와 주방실장 김모(33)씨를 식품위생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씨의 매형이자 이 음식점 사장인 M씨에 대해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판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와 김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양념 갈비

등의 원산지를 ‘국대산(한국)/수입산(호주)’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호주산 대신 미국산 쇠고기 4천300여 명분을 팔아 8천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쇠고기 요리 대형전문점으로 광주에서 널리 알려진 이 음식점은 원산지를 허위로 적어 넣었다가 지난 5월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경찰서와 YMCA 등 시민단체들은 곧바로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한편, 음식점 업주를 검찰에 고소했고, 이 음식점은 검찰 조사 도중인 지난 8월 문을 닫았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택시 미터기 교체

광주지역 택시요금에 오름에 따라 택시 미터기 교체작업도 한창이다. 구랍 31일 광주시 서구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광주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미터기 교체를 위해 길게 줄을 잇고 있다. 광주 시내 택시 요금은 구랍 29일부터 20% 올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교과서 값 오른다 출판사가 가격 결정

앞으로 교과용 도서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교과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념 편향’ 교과서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확한 내용의 교과서 제작을 위해 내년부터 교과서 검정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일정 부분 부여된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부 장관이 가격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출판사가 생산 원가 등을 따져 검정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교과부는 이번 규정이 개정되면 최소 2~3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다. /연환뉴스

10만원권 발행 유보

기획재정부 확정

기획재정부는 구랍 31일 10만원짜리 고액권 화폐 발행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확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통보했다. 재정부는 또 이 사실을 한 국은행에 이날 오후 공문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10만원짜리 고액권 화폐에 대해 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오늘 오후 한은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환뉴스

산업체 병역특례자

2천여명 확대 배정

국방부는 구랍 31일 내년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체에 병역특례 요원 2천여명을 확대 배정하고 12억 달러의 방산물자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통일부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 산업체에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올해보다 1천800명이 늘어난 7천200명으로 확정했다고 보고했다. 이 인원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주로 배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전문연구요원도 1천156명으로 올해보다 274명을 늘리기로 했다. /연환뉴스

생활 게시판

화측

▲이재화(광주시 배구협회 전무이사·풍암고 교사)·정옥희씨 장남 창환(광주 북구청)군 김용준·박삼남씨 장녀 송(광주 북구 입동사무소)양=4일(일) 오전 11시50분 광주교직원공회회관 3층 예식홀.

▲황선용((주)정인 회장)·강양미씨 차남 정인근 김신근·김영숙씨 차녀 윤선양=11일(일) 낮 1시 광주 메리어트웨딩홀 1층 사파이어홀.

부음

▲고재철씨 별세 창석(비온드 스페이스건축)·정석(고정석소

아과 원장)·명석((주)이레컴)·희석(다락방사람들)·진경·진명·효경씨 부친상 홍기룡(홍기룡안과 원장)·노안영(전남대 교수)·이정옥(이정옥과부과 원장)씨 부부상=발인 2일(금) 조선대 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이계례씨 별세 김광민(전남도청)·남규(곡성고)·영근·춘애·광남씨 모친상 정규호씨 부모상=발인 2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최귀남씨 별세 나문갑(전나주중 교사)·의갑(광주시청 시보 편집실장, 전 전남일보 편집국장)씨 모친상 김만규·유철수씨 부모상 조오복·송경자(조선대 홍보팀)씨 시모상=발인 1일(목)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202호. 062-670-4422.

광주국세청장에 김 광 씨

국세청은 구랍 31일 광주지방국세청장에 김광(54·사진) 국세청 감사관을 임명했다.

신임 김 청장은 영암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육사(34기)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4년 사무관으로 임용된 이후 광주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국세청에 발을 디뎠다.

이후 서울 반포세무서 소득세 2과장, 중부청 감사관, 해남세무서장, 대

통령비서실 행정관, 국세청 소비세과장, 중부청 조사 2과장과 1과장, 서울청 조사 2과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의 요직을 거쳤다. 신임 김 청장의 취임식은 2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생명과 사랑의 공익기업

KRA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는 사립공익기업으로, 축산발전기금, 농어촌육식, 농촌사업지원, 지역사회 복지사업 지원, 국민에 봉사할 열정적 기업인으로서, 축산발전기금, 농어촌육식, 농촌사업지원 등을 통해 국민에게, 농어촌주민들 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 2008년 광주 KRA Plaza 기념식 및 전시회

■ 광주 KRA Plaza 문화행사실업(선출목 후보)

구분	종목	출발	도착	종목	출발	도착
경기	경주	10:00	11:00	경주	11:00	12:00
	마술	12:00	13:00	마술	13:00	14:00
전시	전시	10:00	11:00	전시	11:00	12:00
	전시	12:00	13:00	전시	13:00	14:00

410-5000